

투데이 칼럼

국민적 슬픔, 진영논리·막말로 폄하해서는 안돼

그러니까,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비가 많이 와서 유숙이 빠르데도 수십 척의 배가 물 위에 떠다닐 정도로 중구난방식의 운영에, 애초에 저절 정상적인 유람선으로 보는 게 맞나 싶은 배를 가지고 유람선 투어를 소화했으며, 그 정상적인 유람선으로 보는 게 맞나 싶은 배는 당연히 구명조끼 따윈 비치하지도 않았고, 선원은 고작 선장 1명에 선원 1명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방향 전환 때문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이받은 데다가 허블레이너를 들이받은 크루즈는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일정대로 운행했다고 전해진다.

참... 할 말이 없다. 아무리 패키지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고대하며 떠난 유럽여행이 있을까?

그런 여행이 이런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박보경
칼럼니스트

어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실종되었거나 아직 구하지 못한(혹은 병원에 실려있지만 너무 상태가 위중해 사망 확률이 훨씬 높은)사람들을 두고 '가족이 반드시 일어나 주길', '어서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건 사람들이 그 목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언급한 속도는 자체하지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독려와 동시에 회

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국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위로의 말이라고 본다.

그걸 비싼 자유한국당 민경욱의 3분 발언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결코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다. 특히 희생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더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그냥도 할 수 없는 말인데, 민경욱 의원은 그 말을 고작 정쟁의 도구로 쓰기 위해 꺼내들었다. 민경욱 의원에겐 있어서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의 입장 따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저 '막말'에 불과한 게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인간들이나 하는 언행이란 얘기다.

자유한국당에는 사회적 공감능력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인재가 많다.

이제 더는 국민적 슬픔을 진영논리와 막말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독자재언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란?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치료비 문제로 가족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경찰에서 뺑소니 차량 검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대상은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자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그리고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용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이다.

전근수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헤나 장식 어떤가요?”



지난 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라마단이 종료되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를 하루 앞두고 손에 전통 '헤나' 장식을 한 소녀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전북도는 예전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이 꺼졌다 살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산처럼 카툰 속 말풍선 같은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 관심을 반복만 할 게 아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보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인구 유출은 배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을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부권 발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 만큼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말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고 있다.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이쪽의 기대와 달라 지역 발전이 희망 사항에 그칠까 염려가 되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힘을 끌어 올리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저력이 없다면 그동안 전북도가 보여왔던 재육찾기 운동이나 자존심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재육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해 낙후가 심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셸프 자존심일 뿐이다. 실제로는 180만 명대를 붙잡고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든 기성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에는 거주 인구가 260만 명이 넘었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동서 철도 건설 건을 포함해 동부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동부권 주민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용 안정 도모해야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 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해보는대까지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전 그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이것은 도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속히 해결해야 했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이라는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하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마땅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호남통계청이 때때마다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출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 했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 별로 고민하는 기색이 없으니 별 일이다. 미취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굵은 것은 보기에 안좋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라는 음울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들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문제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점주와 군산과 익산과 남원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일자리가 상실된지 오래인데 아직도 그만큼 수준의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 도민들은 불만이 크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